

지역 매아리



정읍시44연합회, 이·취임식 열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회원과 내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44연합회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취임식에서는 류호인(내장상동) 회장이 이임하고, 지난해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최태영(정우면) 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최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소통과 역량 강화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물론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회장에는 정효원(영원면)씨와 임세환(소성면)씨, 사무국장은 김우영(이평면)씨, 감사에 장근욱(신태인읍)씨와 황선국(이평면)씨가 선임됐다.

기술센터는 "청년 농업인을 대표하는 정읍시44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과 과제교육, 그리고 다양한 현장교육 등을 통해 미래 농촌의 핵심리더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해경,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국제범죄 예방 위한 특별 단속

부안해양경찰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입·출국 증가에 예상됨에 따라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 및 의사 활동 강화를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46일 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부안 해경은 주요 단속대상은 어선 이용 밀수·밀입국자, 제주 무사증 이탈자, 선원을 가장한 대테러 국가에서 유입 되는 불순세력, 불법체류자,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등 국제범죄를 해상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제주 외 지역에서도 무단이탈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에 앞서 전북 지역 의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창올림픽 기간 중 유관기관 간 의사 관련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세계인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국제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양 국제범죄에 대해 알게 되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육성 도모

부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부안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고 2018년 부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규모는 2억 5000만 원이며 2~3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운전자금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선정된 업체가 관내 협약은행(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대출 상담한 금리의 3%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부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와 함께 용자잔도액을 결정 받게 된다.

신청은 자금소진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부안군 내에 소재하고 가동·운영 중인 제조업체로 운전자금 용자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부안군 홈페이지(http://www.buan.gokr)에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 063-580-4415)로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이 부안군 지역경제를 이끌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이 원활한 차매조기검진사업 추진을 위해 고창 석정웰파라병원, 임현규의원과 차매조기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창군, 차매조기검진 협약 체결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원활한 차매조기검진사업 추진을 위해 고창 석정웰파라병원, 임현규의원과 차매조기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차매산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가 확인된 차매 의심자를 협약 의료기관에 진단검사와 검별검사를 의뢰해 차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석정웰파라병원과 임현규의원에서는 진단검사(전문의 진찰 척도검사, 신경인지검사), 검별검사(뇌영상 촬영, 혈액검사 등) 차매정밀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매진단검사를 통해 차매로 확진된 환자는 고창군 차매안심센터에 차매환자 등록, 차매치료관리비 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현재 민,관이 협력해 차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매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자생차, 뛰어난 맛·향 '일품'

동아차(茶)·공예 박람회서 녹차·발효차·구절초차 등 선보여 인기

정읍 자생차가 '제11회 동아차(茶)·공예 박람회(이하 차·공예 박람회)'에서 뛰어난 맛과 향을 자랑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3일간) 서울 a센터에서 열린 차·공예 박람회에서 정읍의 다양한 자생차들이 전시·판매됐다.

차·공예 박람회에 참가한 차 생산(판매)업체는 현암다원(박봉호)과 태산방차(최재필), 그리고 구절초 품의 향기(황순애)이다.

이들 업체는 녹차와 발효차를 비롯 구절초차, 여주차, 꽃차 등을 선보여 인기를 모았다.

시는 이후에도 올해 국제차문화대전(6.7-6.10)과 부산 국제차공예 박람회(6.28-7.1),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10.18-10.21) 등 7회에 걸쳐 차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정읍 자생차의 인지도를 높여 판로를 확대할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3일간) 서울 a센터에서 열린 차·공예 박람회에서 정읍의 다양한 자생차들이 전시·판매됐다.

은 물론 이들 자생차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많은 차(茶) 애호가들이 찾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정읍의 뛰어난 자생차를 알리는데 주력했다"며 "이후에도 품질 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판로를 확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부안군은 2018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를 오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통합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이며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200명이 증가한 총 1255명으로 각 읍면 사무소와 민간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청북노인복지센터가 사업을 추진

하게 된다. 공약형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사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노인이며 지역환경개선, 노노케어, 경로당 관리원 등 12개 사업 중에 참여를 원하는 분야에 대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이며, 나이가 있는 채용 대상, 산기경로당 영농사업

등에 참여하게 되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조그령사의 진입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읍, 주민 생활 밀착형 주민숙원사업 착수

89건 총 예산 14억원 투입

고창군(군수 박우정) 고창읍이 올해 생활 속 주민 불편의 해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착수했다.

28일 고창읍에 따르면 주민 소용 강화를 위한 주민 좌담회 및 현장행정을 통해 접수된 주민 민원사항을 적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주민숙원사업 관리체계를 도입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내공사를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 등 89건에 총

예산 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창읍은 이러한 지역개발 사업 외에도 주민이 쾌적한 생활과 여가를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방 등산로 쉼터 및 야생화 숲 조성 등을 통해 고창읍의 명소로 가꿀 계획이며, 지난해에 처음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정담길 조성사업 등 주택단지 거리 환경 개선사업, 덕정편백숲 산책로 조성 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출범

지난 28일 정읍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수성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주민행복협의회와 백년사랑인형의회 혁신청년협의회 등 4개 분과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창립된 주

민 주도의 거버넌스 조직이다.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모에 선정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을 수성동과 정명동 시가지 일원에 투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주민협의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림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It also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